

현대패션에 표현된 숭고미에 관한 연구

최수현* · 김민자

영진전문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숭고미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예술과 디자인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숭고미를 분석하여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패션 현상을 파악하고 복식에 투영된 인간의 미의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복식사, 디자인, 미학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와 사진 자료의 분석을 통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시기는 세기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미학사에서 숭고미는 신적인 영감, 카타르시스, 영혼의 고양으로부터 기원했으며, 고통과 쾌락, 공포와 환희, 부정과 긍정이 혼합된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다. 숭고미는 고통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계기를 극복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미적 쾌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숭고미의 이행적 계기로 도출된 비극성, 무한성, 해체성에 근거해, 숭고미를 비장 숭고미, 무한 숭고미, 해체 숭고미의 하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비장 숭고미는 죽음, 신체적 고통,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공포가 초월되어 체험되는 영혼의 고양으로 공포성, 혐오성, 종교성을 포함한다. 무한 숭고미는 엄청난 크기나 힘을 갖는 대상 앞의 위축으로 인해 초월적인 이성의 위대성을 발견하는 환희에 이르는 것으로 거대성, 역학성을 포함한다. 해체 숭고미는 해체에 의한 자아상실의 공포가 새로운 자아의 발견으로 초월되어 기쁨에 이르는 것으로 부정성, 불확정성, 복잡성으로 구성된다.

패션에서 비장 숭고미의 공포성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과 구속, 죽음의 시각적 이미지, 죄수복과 감옥, 정신이상 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혐오성은 악마적 이미지와 혐오스러운 오브제를 통해서, 종교성은 금욕적 이미지나 종교적 아이

콘을 통해서 나타났다. 디자이너로는 혐오스런 동물의 형상을 활용한 Thierry Mugler, 인간 소외의 공포를 표현한 A. F. Vandevorst 등이 있었다. 무한 숭고미의 거대성을 이루는 방법에는 트레인, 하이힐 등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과 스커트 부풀림대, 패드 등으로 부피를 확대하는 방법, 복식의 일부분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방법이 있었고, 역학성은 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복식으로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났다. 디자이너로는 극단적인 과장을 즐겨 사용하는 John Galliano, 거대한 날개 의상을 선보인 Alexander McQueen, 거대한 부피의 검은색 의상을 선보인 Viktor & Rolf 등이 있었다. 해체 숭고미의 부정성은 역사적 양식의 해체, 민족적 양식의 해체, 성구분의 해체, 부와 빈곤의 해체, 이미지 분산이나 반전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고, 불확정성은 불명확성, 무정형성 등으로 공간적 경험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미지와 사인의 과잉인 복잡성은 기성의 오브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로는 민족적 양식을 해체한 Issey Miyake, 역사적 양식을 해체한 Vivienne Westwood, 성구분을 해체한 Gaultier, 신체와 복식의 공간 관계를 해체한 Hussein Chalayan 등이 있었다.

인간은 패션을 통해 숭고미 즉 새로운 충격과 이를 극복하는 이행적인 미적 쾌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션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숭고미 범주를 적용해 패션에 표현된 미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패션현상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었으며, 특히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는 특성으로 인해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패션의 문제는 오히려 고통을 환희로 승화시키는 미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